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교회학교 성탄축하 발표회

12월 2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출연, 진정한 축하잔치
12월 24일(주일) 저녁에는 임마누엘찬양대 '메시아' 공연

교회는 성탄절을 맞으며 성탄축하 발표회를 12월 22일(금),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매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에는 모든 교회들이 영아, 유치부의 재물잔치와 같은 축하순서를 가져왔다. 그러나 교회는 보다 폭을 넓혀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성탄축하발표회를 가져 성탄축하와 아울러 1년 동안 교육의 발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되어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다.

따라서 각 부서는 준비에 여념이 없고 또한 성탄축하 및 발표회라는 점을 생각하여 가능한한 보다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날은 교회의 거의 모든 가정이 동원되다시피 하게되어 진정한 의미의 성탄축하가 온 교회적으로 벌어지게 될 예정이다.

매년 영아, 유치부의 축하행사에서 이번엔 교회학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는 모임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출연하는 각 부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온 교인들은 아낌없는 격려로 진정한 축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성탄절을 맞아 성탄축하음악예배가 12월 24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임마누엘찬양대가 맡아서 하게 될 성탄축하음악예배는 멘델의 '메시아' 중 발췌하여 연주하게 된다.

임마누엘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등 290명으로 지휘에 장기범 집사, 오르간에 김윤경 집사이다.

군목세미나 마무리

12월 11일(월),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12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합동교단 군목세미나(사진)가 열렸다. 합동교단 군목 33명이 참석한 본 세미나에서는 군목의 역할 및 중요성, 군목의 업무 및 자질 등과 군목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며 군목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 열리는 군목세미나는 금년에도 김창인 원로 목사의 저서를 기증하는 등 여러면으로 지원했다.



선교후보생 동기수련회

12월 25~27일, 충현기도원에서

선교위원회는 오는 12월 25~27일, 2박 3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선교사 후보생 동기수련회를 갖는다.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장래 선교사로 나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이는 이 수련회는 중등부 35명, 고등부 15명, 교사 10명 등 60여명이 참가해 훈련을 받게 된다.

수련회 강사는 선교위원회 지도 장봉생 목사와 고등부 지도 한근수 목사로 특강, 부흥회, 공동체 훈련 등의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갖추어야 할 인성, 지적 능력, 신앙적 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그들이 품고 있는 선교적 비전들을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12월 31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한 직임을 맡아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12월 31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행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근속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년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년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 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하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금년말로 70세가 되는 시무장로, 시무 권사들의 은퇴식도 이날 함께 실시한다.

은퇴 장로 / 박인세 임부남

은퇴전도사 / 김정순

은퇴 권사 /

김순례 김영순 김정남 김필녀 김혜옥 김효정 나태순 남정우 노승녀 박정서 배상남 백죽심 서 옥 심 숙 안순자 유금수 유만녀 유혜미자 윤순전 윤순호 윤재춘 이귀옥 이금옥 이봉남 이석정 이순근 이순례 전계화 전영희 전해선 하광숙 한춘실 홍화범

장기근속자

장로(15년) /

559오진국 2420정하우 603이병학

권사(20년) /

605 백죽심 1673 서 옥 17 신군자

권사(15년) /

492 박선부 1141 김성숙 958 김성애 2649 김순례 475 김순이 969 김영숙 1780 김용순 1178 김정덕 2460 김진만 60 김희자 1904 문선옥 2555 박우순 2530 박은숙 2314 박정서 35 신명희 334 신정희 546 안순자 2361 안정영 939 오덕희 127 유만녀 803 이귀옥 331 이정희 488 임순임 234 전해선 525 조귀남 718 조기형 636 진희순 66 최봉숙 324 한경옥 150 한동숙

권사(10년) /

2301 김근실 1608 김복순 258 김옥순 5048 김준자 1172 김희옥 1748 남정우 228 박영규 1999 박영자 1256 박인애 157 박종연 1025 신순덕 622 안금옥 79-35 염미숙 880 윤수빈 611 이금옥 1722 이명옥 79-330 이지영 1455 임선비 4340 장현숙 561 장희자 3133 전영희 167 전정희 4107 정래완 8410 조옥순 1809 최태희 354 하광숙 729 허경연

서리집사(20년) /

2801 장석환 1971 정상주 3464 임정자

서리집사(15년) /

1230 고문진 4946 김동만 4491 김두원 2659 김수일 741 김연준 358 김재성 1853 김정표 3411 박광석 1392 서경준 3291 손정익 2532 신동석 2560 이성섭 3334 이인근 1576 이춘명 3415 조중광 1619 최지윤 3696 표완식 4886 홍흥기 4104 황일선 3593 강순희 4731 박도윤 2489 권종순 2777 김계희 1805 김석순 4835 김수자 2488 김정애 2039 김정자 1450 김현자

2096 민명식 79-27 박경자 186 박부강 603 박숙영 916 박옥희 1435 신춘자 3832 안춘자 2955 유경아 199 유정자 2062 윤경춘 2860 이계문 2809 이군자 898 이복희 79-39 이상희 111 이숙영 1410 이정애 2420 이정애 685 이주형 2982 정순이 3165 최영희 3284 최정숙 3410 한경분 3091 한구자 3883 홍문숙 서리집사(10년) /

1959 공창호 81-5 김동옥 79-46 김복학 83-604 김성근 82-7 김윤환 82-487 김일주 1386 김장진 2375 김정길 80-104 김태연 81-125 김태호 81-846 류시대 89-591 문영규 3378 박영기 80-123 박영봉 79-130 박종현 3599 박창서 80-484 박호용 79-352 백남계 1256 서길원 82-711 송한성 82-212 송홍주 4875 신정호 84-559 윤석민 82-600 이광국 4919 이병두 2719 이상호 527 이용호 83-605 장영순 80-623 정창원 80-19 조경행 3202 조영규 82-524 조중덕 83-158 최성조 84-1040 최영창 82-648 허만선 79-180 강계순 2673 강수자 83-592 강옥희 5193 고영숙 81-999 구명숙 81-419 권안순 81-48 김금숙 4119 김부영 79-204 김삼순 81-902 김상인 82-563 김순곤 80-28 김재순 82-625 김재순 1428 김정자 81-921 김종순 2600 김 철 3065 김춘숙 4046 김형숙 81-126 노본선 4586 박삼순 82-230 박영희 4499 박재옥 3184 백수옥 82-265 백진옥 80-15 송춘임 4723 신선원 4696 신영희 4115 신정숙 3199 심정례 1230 양정원 2819 오경남 81-977 왕인숙 1345 이금복 80-372 이명숙 5231 이삼세 4813 이소규 80-711 이영자 80-93 이원희 81-506 임정순 81-125 장민화 806 장희숙 84-34 정길례 85-652 정정자 4522 정진순 2494 정학순 85-65 조옥주 2852 주장애 1980 지아연 798 지영순 3860 지인숙 82-212 진화자 84-169 차봉순 84-1040 채영애 5277 최성자 4164 최수미 485 최순길 4543 최순혜 81-1022 최정일 80-465 한애현 83-330 허혜균 3992 홍순애 직원(20년) / 4832 강영철

'96 신년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1996년을 맞으며 '96 신년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정석홍 목사(총회장)와 윤종일 목사(충현기도원 지도)를 감사로 열리는 이 부흥사경회는 96년 1월 2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이게 된다.

각 부서 1년 마무리

'회고와 전망'의 시간을 마련
교육위원회 총회 20일(수)에

12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또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진다. 교회에서는 내년도 각 부서 임직원들을 임명, 발표하고 각 부서 총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교육위원회 총회가 12월 20일 오후 8시 국제회의실에서 모인다.

각 부서에서는 지나가는 95년을 돌아보고 오는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려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브리엘찬양대는 12월 21일(목) 오후 6시, 만나홀에서 '회고와 전망의 밤'을, 고등부는 12월 23일(토)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발표하는 '코이노니아의 밤'을, 청년1부는 12월 31일(주일) '회고와 전망의 시간' 등을 마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성도의 담대한 기도 (시 7:1-17)

사울 왕의 둘째 사위가 되는 구국공신인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될 다윗 장군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오히려 장인되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억울하게 도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꿈도 안꾼 죄를 다 사실처럼 꾸며서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다윗 장군이 칼을 뽑아 들고 구시를 죽인다면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장군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재판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가 시편 7편입니다.

1. 다윗의 형편이 어떠합니까(7:1-5)

(1) 원수에게 핏김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7:1)라고 다윗은 먼저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위태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봅니다. 그러다가 안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심지어 너무나 돌에게까지 빌며 부탁을 하는 미신을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 장군은 억울하고 위태로울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 앞에는 막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주위 사방이 전부 다 막혔고 위에 뚜껑까지 막힌 것 같으나 영적으로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을 막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자들이 양 한 마리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돌리서 오르려 거립니다. 내 사정이 이처럼 위태로워졌는데 하나님마저 버리시면 나는 인간적으로 끝이 납니다. 저들은 나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사정입니다.

(2) 어려움을 당했으나 무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셀라)”라고 다윗은 자기의 무죄한 것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롬 3:10).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수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고소한 죄하고는 상관없이 없습

니다’라는 변명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마음으로는 죄를 품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손으로 죄를 범한 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을 품었거나, 내가 왕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친구와 더불어 의논했거나, 내가 사울 왕을 죽여 버리기 위하여 칼을 갈았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내가 열 번 신세를 진 사람에게 한 번 억울함을 당했다고 원수로 갚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신세를 진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를 갚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원수들이 나를 갚은 모략으로 죽이려고 하지마는 나는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재산도 탈취한 적이 없습니다. 크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지요! 내가 만일 저 원수들이 하는 말대로 죄인이자면 내 영광도, 내 생명도, 내 영혼도 원수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나,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활동력, 운동력이 있으니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죄를 안범했으면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2. 하나님 앞에서 취한 다윗의 태도는 어떠합니까(7:6-10)

(1) 불의를 당당하게 고발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묵인하지 마실 것을 단호히 요청합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행악자를 향하여 진노의 판결선언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행한 일과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말 도망 다니기 힘듭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의인된 나를 의롭다고 하고, 악한 자된 저들을 악한 자라고 천하 만민이 알도록 빨리 선언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원수들의 불의하고 잔인한 계획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막아 주시고, 억울함을 당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사실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공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반역죄를 범하고 도망 다니는 줄 아나이다”

(2) 자신의 의인됨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을 뿐 아니라 의인을 세워 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로운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말에나 행동에나 불의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의인에게는 승리를 선언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심장을 보신다’는 말은, 속이 깊은 마음의 계획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결을 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추측해 해보는데 사람의 추측은 너무나 잘못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어보십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꿰어 보십니다. ‘꿰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악한 자의 악은 꺾어 버리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을 뿐 아니라 의인을 세워 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로운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말에나 행동에나 불의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3.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7:11-17)

(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7:11)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당장 처치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언제까지 묵인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우주 만물을 일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악한 자에게 일초도 떠나시는 적이 없이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계속해 받으면 행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가까워 오는 것도 모르고 덤비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에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때에는 몸의 질병, 어떤 때에는 억울한 감옥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모퉁이로 울려지 모릅니다.

(2)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7: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는데 칼과 활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고,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신 것이 아니고 칼집에서 뽑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메고 계신 분이 아니라 활촉을 뽑아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것을 모르고 덤비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는 상관없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먹고 살 기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실패의 눈물과, 패전의 비극과 무서운 질병과 심판의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의인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마음 속에 계획을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죄악을 낳아 놓고는 거짓말로 핏먹어 키우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핑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해하려고 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나무에, 목매어 죽이려고 잠을 못자면서 세워 놓은 오십 척 되는 나무에 이튿날 점심 후에 자기의 목이 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지 않다는 것, 억울함을 당해도 직접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손해 당하지 말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개인 개인이 원수 안갚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의 편에 들어서 의인을 모함하던 자는 까닭없이 의인을 괴롭힌 죄의 형벌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꿈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시하고, 양심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되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책임에만 충성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며 도망가던 다윗 장군의 기도는 몇일 안되어서 임금님으로 영광을 누리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의인을 괴롭히다가 벌받은 사울 왕의 가문처럼 되지 말고, 의인으로 의를 지켜서 다윗 장군처럼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재명 지 도 / 현상민
서 기 / 김여순 회 계 / 박인건
부지도 / 최순복 장영자 임태주
위 원 / 이병학 김여순 박인건 김인관

예배부 / 부장 김여순

1부 차장 / 전용해 부원 / 김은철 손진성 최진성
2부 차장 / 김여은 부원 / 김점석 신명성 최선두
안병호
3부 차장 / 최차용 부원 / 최기홍 엄기정 서동석
이인영 정상구
4부 차장 / 오인근 부원 / 한경선 박노택 황기용
이동욱
찬양예배 차장 / 최기홍 부원 / 오인근 엄기정
수요1, 2부차장 / 김점석 부원 / 박노택 황기용

성례부 / 부장 박인건

차 장 / 서동석 김옥례
부 원 / 백죽심 김석운 김용순 김순이 김정순 김옥희
김준자 김애경 김춘희 김근실 민건식 박두희 이종숙
이의복 이인숙 김인숙 이미재 안정엽 우순성 신명희
전부덕 조 숙 조희순 전순자 정명섭 진희순 최미정
최경복 최태옥 한영숙 현계식 필기복 이병숙 전명옥
한영덕 최봉숙 최봉순 윤병인 이도영 박태순 권오순
김남진 임옥환

안내부 / 부장 김인관

차 장 / 정청길 왕진숙
1부 예배 1층
조 장 / 김재홍
부 원 / 소재철 김재호 배은경
2부 예배 1층
조 장 / 김계희
남부원 / 권순탁 이종현 박재홍 김언희 남용철
이학봉 안 국 김근호 이덕영 김신원
여부원 / 정은숙 김필숙 오달녀 유정자 김순임
서인숙 정민자 윤 순 박경희
2부 예배 2층
조 장 / 김상길
남부원 / 엄규영 오동건 지정록
여부원 / 안선자 조미애 유현정 성명호 김재영 이명옥
3부 예배 1층
조 장 / 정영래
남부원 / 김원봉 변영인 이연구 김선구 김일주
김종서 이종석
여부원 / 박옥림 남양희 최순혜 이영순 김정순
이정덕 우영희 김유자 이희주 한정희
유승자 민영기
3부 예배 2층
조 장 / 왕진숙
남부원 / 김남재 김광근 김수현 김진구
여부원 / 김인숙 박영자 윤희순 이옥자 김영언
탁경미 박영자
4부 예배 1층
조 장 / 최종배
남부원 / 최만우 남용승
여부원 / 태명자 김명구 장숙자 고금자 유은희
박영희 황영숙 최정옥 방군자 양승자
김영숙 안옥림 전명식
4부 예배 2층
조 장 / 황인주
남부원 / 이산영
여부원 / 김지현 최은희 이해자 이의섭 이금복
구인숙 신진숙
저녁찬양예배 / 정청길 김인희 안희정 엄규영
수요2부 예배 / 정청길 엄규영
금 요 집 회 / 정청길
영 어 예 배 /
부장 / 이병학 차장 / 이석영 김 순
부원 / 김정은 김정순 윤석구 김정찬 양근식
황영철 장해숙 홍경숙 김석영 김복순
Mr. E. Lavina Mr. Reinhardt Mrs. A. Lavina

찬양위원회

위원장 / 손동운 지 도 / 박정환
서 기 / 이 훈 회 계 / 차신득
위 원 /
김천재 차신득 이종석 하대선 이 훈 정정자 현계식
구자남

가브리엘찬양대

대 장 / 김철재
부대장 / 박종규 홍명순
제 회 / 조신욱 반 주 / 백금옥

<소프라노>

강영희 권미선 권수정 김경숙 김명숙 김미자 김송희
김은희 김정림 김지연 박영진 박유화 방희정 백수연
서정경 서정옥 석정자 손성옥 손소영 송세진 송양원
송연자 안현희 오보미 오윤숙 이경화 이명희 이비리
이미연 이순호 이진희 이혜숙 이희경 임경숙 장신실
정부희 정옥남 정윤주 진현중 최경숙 최근준 최영실
최영화 최유정 피순복 하영희 하영금 박해순 손에스티
안은미 윤혜원 민소희 김은주

<앨토>

강석주 강운재 광기영 김미선 김선영 김성희 김순중
김신자 김영은 김경화 김옥남 김은영 김해영 김현숙
김현정 노명순 노소옥 박정순 손근영 신정숙 신춘희
연화희 오영혜 윤춘심 이경오 이설희 이숙희 이순화
이연화 임광희 임선애 정길자 정현자 정희자 조미순
조현숙 최귀순 한수미 홍명순 홍원희 홍풍작 홍성실
조은비 박선희 송윤경 홍명순

<테너>

고경훈 권병철 권석태 김영달 김홍배 문요한 박상대
윤석민 이광열 이시형 이종윤 이도현 이진수 이태형
임창식 장상원 정광택 최동규 최승민 강성희 이석재
권 일 김동현 신문석

<베이스>

강신근 강창근 구자승 김낙홍 김의철 김용석 김태성
문광석 박동희 박명근 박석두 박진희 박홍규 손창열
신진길 양은식 유국현 이기남 이상범 이윤복 이종섭
이지형 이창우 장영수 정대부 정선현 정연택 정중현
정혁구 조성훈 허광만 황진경 박은기 문근식 이재준
김주현

임마누엘찬양대

대 장 / 차신득
부대장 / 이계인 정명실
지 회 / 장기범 반 주 / 김윤경

<소프라노>

강길례 공수진 광영자 김경희 김보경 김은미 김은숙
김준숙 김예숙 김현정 김혜령 김혜영 김효순 김희선
김희숙 명성희 문영미 박미나 박경자 박선아 박석희
박지연 박현주 박화성 배윤숙 배정희 양시원 엄선자
유혜연 윤남순 오은경 박정수 오정혜 옥윤미 이양현
이연실 이오복 이은정 이수경 이정은 이주은 이현진
임경순 장득경 장순양 정경숙 정윤아 장희숙 정정임
조현숙 채명혜 최금란 최정자 최정자 홍성미 홍성희
한선형 한연숙 한현정 허수원 허신희 박상금 이윤진
황순란 김의주 황재희 황선희 박금진 진옥란 이윤화
서신옥 정효숙 전소영 황윤미 민희정 김소영
남준자 김경아 서현선

<앨토>

강수정 강영림 광정기 김규복 김경희 김나래 김관영
김선영 김영순 김영임 김은숙 노효영 박정연 박형숙
방미숙 배자은 오계주 변소정 임영신 송미경 송미경
송연란 안명진 안은애 양시정 유진희 윤정선 이덕순
장연희 장정숙 전지현 정미란 정명실 조남연 조영주
추수미 최정현 한지연 황정미 하진희 한 나 홍은영
변지선 도수자 정정원 김숙자 김미옥 최미경 김보영
이진숙 임선희 정지아 황정희 임효정 정효륜 김지영

<테너>

강만수 권수일 김기용 김도형 김봉균 김상권 김정호
김훈식 나승은 노영광 박명호 박은기 박장우 변성주
변인식 성문현 심정태 안명철 윤기훈 오경철 오정성
이남철 이만재 이수형 이정구 이재웅 이정기 조성수
이형준 장석창 장호관 정철영 최만호 서정현 엄현민
장석운 김중훈 이상협

<베이스>

권현실 김상열 김인웅 김영일 김정호 김진홍 김태석
김형일 남기석 남선우 나승락 박용진 마세열 안충영
염은식 이규원 이수길 송은석 장경식 전이배
정영덕 정상수 조시배 조준환 송은석 최요셉 홍성민
박완용 한종웅 강대영 박선홍 김성길 장 훈 김용현
김우형 정대호 이종복 박경환 차신득 장병준 윤종권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조현해 이규성 권세영 박주연 박재숙
<비올라> 이진희 강민정
<첼로> 김정현 한기현 최정아
<플루트> 조현주 오경남 오은희
<오보에> 박재현 오은희
<클라리넷> 배연하 김성광 송윤주 주대영
<바순> 김지현 김현전
<트럼펫> 송현전 원지연
<호른> 양자영 문지애
<팀파니> 윤성원 김영아
<판곡>

남성중창단

단 장 / 차신득
지 도 / 김윤경
단 원 /
이재욱 최문성 김봉균 노영광 전이배 고범석 안충영
이규원

할렐루아찬양대

대 장 / 이종석
부대장 / 안동현 전성자
지 회 / 김철륜 반 주 / 김옥련

<소프라노>

권경희 권기영 김명애 김명자 김수진 김옥순 김윤옥
김은미 김인숙 김정자 김정희 김종희 김정순 김충자
박경희 박나연 박미라 박미서 박미애 박수정 박영란
박정윤 백광자 서영남 성경옥 송선옥 송연임 신순혜
오명자 오희승 원춘자 유경아 유병급 유은희 이분남
이복희 이영미 이영자 이은혜 이정애 이혜정 이혜숙
임윤숙 장민주 장업선 정명애 최성숙 최수희 최애자
최영선 최영옥 한옥화 한홍래 허정애 홍태경 김송자

<앨토>

강정희 금호순 김옥희 공인화 김경애 김성자 김광혜
김은미 김세희 김미화 김송하 김은주 김연향 나은이
김지은 김혜숙 김정원 김은영 박익순 이복순 나순희 박영순
유성희 박경희 박은영 박영희 윤미경 신명주 이영자 박지혜
변문정 이연순 이인숙 이경란 오계순 조명희 이은선
윤정혜 안종순 이경애 임성남 오계순 조명희 이은선
손양옥 이정란 이경애 임성남 오계순 조명희 이은선
전은실 유혜자 정화연 장선복 최정현 정상순 황광순 표소원
장신자 정순옥 황은선 최정현 정상순 황광순 표소원
하순영 홍의숙 최수경 홍전주 한인숙 정은경 김영임
주윤숙 이지용

<테너>

김광선 김광은 김길선 김정조 노은영 박두일 박영대
임복섭 유신오 윤주현 이송국 이인구 이인영 이 준
이종석 임연수 전명수 정성고 정학주 조윤제 최대원
최원일 최정렬 표성태 한송한 김종태 최세진
<베이스>
권영주 김병수 김영휘 김운식 김재범 김종식 김종필
김태호 김형곤 류장호 박광래 박수현 박우현 박종신
박진완 박태진 시한승 선명환 손정익 박원호 신현호
안홍모 오준근 우종근 이주홍 이태현 이호일 이희재
임국성 조남신 전인걸 전정구 정위석 조윤현 지동준
최우근 이상원 표향열 허정옥 장경옥 김대식 고범석

할렐루아 오케스트라

악 장 / 이수철
<바이올린>
김대곤 김지형 김봉화 박경희 박 민 박석희 유지연
이도연 이예스티 장연희 최승은 최영옥 최금자 황윤희
김영민 정은경
<비올라>
김성희 박정민 신민경 우현희 이수민 윤선혜 정정민
<첼로>
김정원 조윤경 김희전 박민선 허주리 정이랑
<플루트>
고도인 동현정 신민주 이은길
<오보에>
강소연 정현주 김진아 최승준 최호일
<클라리넷>
강선재 김진아 최승준 최호일
<바순>
김아열 임지연
<호>
임지연
<트럼펫>
백은희 임정미
<트럼본>
김영미 김은미
<팀파니>
조진정
<판곡>
고범석

이멘찬양대

대 장 / 허대선
부대장 / 조규호 김정순
지 회 / 이수철 반 주 / 송영미

<소프라노>

강동화 김정순A 김성록 김명선A 김명선 김영숙 김성옥
김영민 김영선 김경자 구혜옥 류명희 박해준 박경애
박현숙 박성순 백수진 장순희 석대임 송문영 이정숙
오명주 원용숙 이영순 이경자 이정순 이현숙 왕연숙
이숙현 유정자 이명희 임화선 안옥자 조지은 조유자
정명숙 정정숙 전옥순A 전정자 최종분 최경희 한계식
홍성순 홍명희 허정남 한 복 임선아 애애영 심수현
이혜은 박귀자 이정숙
<앨토>
백숙자 김정순C 김정단 김정숙 김순옥 김순은 김명순
김영옥A 김국영 김명기 김아진 강영옥 박윤식 박정숙
박선미A 박선미 박종은 백원경 변창지 황소애 백순자
서은심 성경옥 엄정자 이명자 이영숙 윤정희 이복희
이숙옥 이정숙 이희숙 안금자 이순옥 이근덕 정윤선

장정연	전유강	장순태	조춘옥	주선영	최양숙	최정란
최수자	최영란	한예현	한은정	박옥자	이영진	허영자
<테너>						
공병식	김인술	김영춘	류기명	유현동	이봉주	이영민
이홍	정기성	조규호	최홍규	문승길	오세한	변광석
송영상	김철환					
<베이스>						
강호원	김경환	김형덕	김신국	김성국	김동락	김성태
동방용	박병선	우기섭	우영택	임우도	전종익	정세용
정기찬	조형수	조규만	채종성	최상기	하대선	김영우
김대인	이보신	노동영	정우성	정길수	이지은	

시온찬양대

대 장 / 김천재
부대장 / 손철 박정순
지 휘 /

반 주 / 최순복

<소프라노>						
권현숙	김선규	김명규	김진아	류혜영	송영현	송경주
주양숙	정혜영					
<앨토>						
김미정	김민정	김은미	김은주	박선희	나정연	송유진
오선화	윤지애	이미경	이복희	정지연	홍정화	홍정혜
<테너>						
김대현	김윤식	김준규	김희선	윤성기	정인선	채홍표
최도준						
<베이스>						
김의진	김정현	박형근	백국현	손건국	염현일	이영철
이진수	정찬홍	허경	허광만	홍인권		

실로암찬양대

대 장 / 이훈
부대장 / 박성명 나영실
지 휘 /

반 주 / 임효선

<소프라노>						
권미숙	권현숙	김경희	김광연	김선영	김송자	김정원
김충자	김희숙	노경숙	배영주	서혜덕	신순혜	오은경
원춘자	이복희	이상금	이승순	이운자	이정애	이정현
이주은	이혜경	임순록	정옥영	정은희	허승빈	
<앨토>						
강은선	강정희	김경아	김세희	김윤정	라영실	박선미
박연숙	박입순	박혜정	손경희	신주영	양영경	유성희
윤미경	윤정혜	이명자	이복순	이숙희	이지영	주윤숙
차봉순	하순영	한은주				
<테너>						
김정호	박두일	이남철	이동우	이승국	이정구	장성열
정인선	조성수	최세진	한종용			
<베이스>						
김대인	김성국	박두일	김형곤	박성명	박완용	박우현
서한승	안희정	양영배	이규원	이승계	이훈	임낙준
전정구	전홍렬	정영덕	차신득	채용석	표왕렬	홍성민

모산나찬양대

대 장 / 현재식
부대장 /
지 휘 / 송숙자

반 주 / 채은실

<소프라노>						
강동화	곽영자	김경숙	김동래	김명자	김미자	김봉순
김옥기	김연미	김영빈	김연수	김영희	김옥순	김정자
김재숙	김혜진	남경자	노계운	성미자	박경자	박영희
박인자	반연숙	방신자	방희정	배화자	백순자	백영희
서영남	서화자	성춘순	송은주	신소자	신영자	신일순
안경덕	안정희	이수덕	양삼순	양선자	유기림	유명자
유성자	유효순	윤남순	윤여전	이규숙	이경효	이명자
이순일	이혜심	이현숙	전옥미	전성실	정금숙	정길자
정찬실	조영자	최경순	최숙경	최정자	현숙원	허영자
허인순	현재식					
<메조소프라노>						
구혜령	김경수	김순은	김옥남	김은숙	김정자	김행숙
노정자	도성희	문경희	민병란	박남희	박명엽	박복숙
박순옥	변성옥	백숙자	서인희	설복연	손복희	손숙자
염숙현	오경희	원숙희	유인순	이봉선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임선애	장희수	정은순	최창현	현경남	
<앨토>						
구영희	김경자	김성도	김순애	김영자	김인자	김정란
김혜수	김춘지	김호순	남수현	박남용	배옥순	백영자
변정자	신정순	안상숙	안정자	양영숙	이강해	이수지
이순민	이영영	이연희	이현남	이혜영	임영숙	장명숙
장정훈	안소현	하영자	박혜정			

핸드벨콰이어

대 장 / 정경자
부대장 / 김숙옥
지 휘 / 송제원

강대영	강은정	권은아	김광미	김미리	김문정	박은기
손에스더	송정근	신혜령	안은미	양자영	오지혜	유현정
윤경미	윤혜선	윤성혜	이보람	이태호	임희연	전진경
정해미	최은정	한종용	한현정	홍미정	김시영	김소연
김숙영	김성연	김보라	김유경	김현림	남지연	박은영
백혜조	안지영	이광목	전재범	조혜영	손은혜	이누리
정지영	안지원	김지은A	유일환	이호영	강아영	김현아
최효진	김나영	배찬희	한신애	윤한나	김지은B	김인애
권성재	강미경	박성은	김지신	김윤정	천진경	박사라
김미나	이현주	김찬미	변영현			

크로마하프, 만돌린 연주대

대 장 / 구자남
부대장 / 노순옥
지 휘 /

<크로마하프>						
강신순	구자남	김경순	김미경	김영옥	김옥순	박정희
박복덕	박희숙	성지현	손희식	신정옥	신주영	오광순
이미란	이민숙	이영희	이인순	이정미	이정자	전옥순
정순경	정영래	정정자	최기훈	황진순	윤정혜	최종란
윤명자						
<만돌린>						
곽영자	권명희	김국자	김숙자	김영화	김신자	노순옥
노인숙	반연숙	우명자	유재옥	윤춘심	이국표	이성희
이승연	이연순	이영숙	이영순	이정희	인정옥	정명실
양승자	전경금	한수미	홍명순	이월산	이정희	방연옥
최정현	김은주	구영희	이명희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영개	지 도 / 이종대
서 기 / 서동석	회 계 / 송환창
위 원 /	
정광호	조인재
이인상	송기홍
강도용	엄필성
김춘권	고병국
강봉수	박상준
최무길	윤성철
강 협	최성현
이병화	최운덕
임무현	양종섭
이하영	박영식
정운석	마성락
송환창	이종국
김종구	서동석
이병옥	

1. 영어부 / 부 장 정광호

지 도 / 박도수	부 감 / 최정남	서명숙
남교사		
김을필	이명규	윤희택
여교사		
장명자	박효순	김옥희
김지영	유은경	홍영일
한희정	이아연	이순영
강순주	이영순	윤선주
강석분		

2. 유아부 / 부 장 조인재

지 도 / 계선화	부 감 / 권명옥	이남숙
남교사		
조승철	문원준	정재호
여교사		
김국자	김현화	박미향
유미향	강소영	장정순
김두연	김은희	전숙영
김세진	전숙영	김영기
김영희	이영애	권은아

3. 유치부 / 부 장 강봉수

지 도 / 정연희	부 감 / 이동명	오화자
남교사		
홍성숙	강봉기	김용대
고영수	이호식	김민태
여교사		
박명란	임현진	최금실
김영실	정진숙	조영미
오정남	방현미	이명숙
노은영	임은미	조정혜
민병옥	이혜이	왕지원
강수연	김지영	면지혜
조복연	김성희	

4. 초등1부 / 부 장 박상준

지 도 / 손미희	부 감 / 전홍용	김정자
남교사		
박태근	홍치순	김경남
여교사		
박윤진	박옥자	이미안
이성옥	이명자	이명은
이미화	마현미	이영숙
김금순	조수연	변정실

임영숙	송영복	이혜숙	정인자	이용순	정정진	정혜라
-----	-----	-----	-----	-----	-----	-----

5. 초등2부 / 부 장 임무현

지 도 / 송향자	부 감 / 강철형	백영기
남교사		
송태련	오해섭	송병렬
한병구	조규하	오무석
여교사		
김보옥	문현정	남영덕
구해옥	신귀옥	김영혜
윤마리아	최종남	윤정자
김옥동	임미자	이경화
서신영	안순복	최은혜

6. 초등3부 / 부 장 양종섭

지 도 / 오인숙	부 감 / 김영수	최하자
남교사		
양병진	김성태	이삼열
진양을	김운섭	노남두
고건일	이영식	
여교사		
황태진	함미자	김승희
이인수	이원희	천은송
박애희	심미정	이영복
김지은	이영숙	윤수진

7. 초등4부 / 부 장 김중구

지 도 / 박노철	부 감 / 김환기	김순실
남교사		
허만선	이창영	양현원
최창준	양승길	장지관
여교사		
조정란	최은희	박윤경
장우해	한성희	원상희
이용표	김재순	김영옥
정미순	송복화	장연준

8. 초등5부 / 부 장 이인상

지 도 / 김필수	부 감 / 전홍렬	이수자
남교사		
이석복	권백용	이정태
한종남	장인희	홍재현
김재윤	이성남	임덕일
여교사		
박병순	정원남	한주선
박양덕	조순남	조순남
송영록	안지영	최정애
이성실	이복희	장정윤

9. 초등6부 / 부 장 송기홍

지 도 / 조동원	부 감 / 장주석	서종남
남교사		
박광식	정재복	지성광
이영민	김기현	양찬호
남중호	안창화	정창일
여교사		
강영희	이은경	김유희
장혜진	김인숙	도규정
이은정	안삼인	허국현
최종분	이현정	박준열
김성자	윤인숙	추진희

10. 중등1부 / 부 장 최무길

지 도 / 김희수	부 감 / 이지걸	조옥환
남교사		
조운성	전돈석	김정구
정원근	이형준	김규식
이진호	김상진	전동용
원용철		
여교사		
김영숙	이승연	손순자
자인숙	백광희	김희정
김복희	송신아	김숙옥
최정일	이미리	김경아

11. 중등2부 / 부 장 윤성철

지 도 / 최영찬	부 감 / 박철구	이애나
남교사		
이병식	신광철	박성호
최남희	박길배	문운수
윤병식	조준민	안성호
김창환	김종홍	권희진
김규용	김우준	김남식
김광은		고문길
여교사		
박혜정	최소영	현정남

유명숙 김예성 한은주 정연희 홍정호 변평수 강은숙
조영숙 정은희 오순자 김영숙 주영혜 고진순 이정희

12. 중등3부 / 부 장 이하영

지 도 / 이홍성 부 감 / 한송규 최 규
남교사
박용기 이영환 김용훈 최한보 이인광 김 현 류동호
정윤성 이종환 심민석 이준석 나한선 박원영 현준봉
정혁구 박우정 김영달 이혜철 박관수 조성래 최낙곤
정인선 조문수 이성직 김시주 정의홍
여교사
이승순 최혜리 문미령 심진경 이진모 조순림 임부자
이애숙 장민화 김경희 이상희 백해영 함순려 김영숙
이훈숙 성명희 신영희 남은우 조중선 김부영 김은주
유재춘 이미숙 최경아 원지현 최은경 김희수
이인선 정애선

13. 고등부 / 부 장 박영식

지 도 / 한근수 부 감 / 김단용 조혜순
남교사
김정필 김광호 김교동 이상복 박종률 백 종 최정길
구승희 이성철 송원석 문경안 염광호 민재환 김영길
홍원석 최상만 구재완 김대운 이승계 성백진
신주홍 윤해균 장태영 이정철 김동욱 송석근 박상대
김재경 이상근 김영수 홍원석 양기수 김황진 김영환
최동욱 이병두 최경하 임대혁 윤석민 장석두 이양선
여교사
임미영 권수인 김명주 송영진 손명희 정희공 이부용
유길자 김윤정 성명선 조옥자 한 숙 김선자 송진경
동지현 김연식 양순옥 서은숙 이금효 전부자 홍순애
정경희 장남희 강영자 여신자 이수현 김성주 박영미
박은주 문경희 마미경 심진희 이원경 신지희 김신영
문점희 노해경 백정숙 노정숙 이득혜

14. 대학부 / 부 장 서동석

지 도 / 장봉생 부지도 / 이준경 부 감 / 안석현 강순희
남교사
노영환 김한원 김종권 조웅진 김재호 이재욱 정수일
최민석 정구도 이종관 김요섭 차문수 김윤식 전일승
여교사
장희수 유순원 남미숙 우숙영

15. 청년1부 / 부 장 장모용

지 도 / 김동석 부 감 / 이형수 우순성
남교사
정태두 이찬욱 이명종 김인철 문영규
여교사
남정애 신인순

16. 청년2부 / 부 장 엄필성

지 도 / 김정우 부 감 / 임기재 박명업
남교사
박종규 이진규 허해균 안병호 한만교 최준호 김두선
정재모 임채봉 박찬옥 정영재 정정근 이학봉
여교사
임경순 김신자 박정란 최태욱 김정순 안태숙 박춘옥
홍화숙 김숙희 김숙자 김순곤 정미자 정정희 서영남
한금자 채명혜 홍영숙 최영아 박명숙 이귀열

17. 장년1부 / 부 장 강 협

지 도 / 정광욱 부 감 / 황의만 최정옥
남교사
박정태 황현철 이태식 김영록 소재철 장영환 전계식
조종광 김연근 강만호 라승은 박종태 김규중 김승곤
박호용 심용걸 강종목 고승관 이상재
여교사
채해선 한숙원 윤정식 양명자 한정희 김경순 임영옥
김용섭 배철만 신은소 원숙희 이희주 안정선 진화자
강길래 이애자 윤병인 이영자 오경희 유효순 윤인순
김영환 락도윤 김순남 김정숙 이순자

18. 장년2부 / 부 장 최성현

지 도 / 윤영탁 부 감 / 이종섭 박효지
남교사
최차용 안노수 황용식 이병영 진학래 최지윤 안성영
장봉순 이명희 이명희 한준원 이상용 조철주 김남조
전용해 박종옥 금호탁 이규선 표완식 박문태 이명균
여교사
정경자 신일순 임근애 심효숙 민병인 전옥희 안소현
최현숙 안정희 조금자 최봉숙 강경란 김성도 차창숙
윤옥자 조분자 김옥희 이혜수 김경순 이명자 이정은
김현옥 양숙자 김수현 서금자 서금자 왕진숙 김춘지
이인숙 신소자 홍기환 이정일 김성순 하영자 최영득
유동숙 이서륜

19. 장년3부 / 부 장 정운석

지 도 / 정규남 부 감 / 황영일 이의복
남교사
이동수 김민채 주열호 박상철 지규성 정재복 김진섭
김세홍 김은철 김경수 김용석 강진택 김도신 김용도
여교사
한영숙 이정애 이미애 강정희 유영자 송태영 이종숙
김순이 김동래 김경애 장정숙 강봉옥 조향숙 최선옥
공향조 이춘일 김점순 조동숙 김현자 전순임 한동숙
한영덕 정운순 김석순 조귀남 김준자 최봉순 이순근
최경복 전해선 임순철 송정배 조희순 김영숙 한순원
정정자 서양순 최혜영 김후전 유금순 이귀분 김심영
이연순 유금일 김용순

20. 소망부 / 부 장 마성락

지 도 / 이종대 부 감 / 이만기 이명자
남교사
박창근 이장하 오동환 권용동 조홍진 유영식 추병창
허형철 강희환 최용길 문광석 이정훈 정유채 허종문
김윤식 이기찬 허관영 이덕규
여교사
최태욱 장신자 김경순 이형숙 정문대 강순자 김상인
이순자 여중녀 고남근 조영숙 고정임 이정애 안정자
신영순 박정애 방정현 변성옥 구옥자 나선애 윤정덕
이형주 이영애 지숙원 임원실 박숙경 이상덕 김명자
유병순 임옥환 이인경 이영영 유성자 왕유남 이정숙
라영실 이윤영 문하숙 안옥실 이정호 한명희 손성옥
윤정미 이영숙 필기복 안지영 김순자 김혜명

21. 새가정부 / 부 장 이병옥

지 도 / 성봉환 부 감 / 박덕양 백영희
남교사
이성남 이정관 강태주 배춘식 이광국 김기환
박영섭
여교사
성미선 배복자 박현혜 장세복 임희순 박선숙 김정선
박일심 김점남 염영애 박남희 송정순 석귀수

22. 사랑부 / 부 장 김춘권

지 도 / 장정철 부 감 / 김중선 최미정
남교사
조종환 박경렬 한철주 이정탁 박준배 이승구 이신환
오부운 김기원 심승룡 안경호 전성옥 조병렬 천장길
구본재 손민중 김지옥 조명호 홍영표 손영호 백선엽
박순규 최한중 정순팔 김중대 신준성 이명복 김용의
이형근 고광국 정은식 조태현 홍기준 서석태
박근석 김성현 송재홍 조민규 최준형 임낙은 김진기
유성수 조경래 송수일
여교사
송숙자 최선자 나영실 장명숙 김정애 이종순 김희경
김향자 이희진 한성수 손지영 정호진 박정숙 방유리
김경순 김공예 정혜숙 김나정 우정자 임창순 박명희
김정민 안정화 민혜정 서지선 김재윤 김해옥 김봉재
최정순 이명희 정은숙 김순희 오계분 김향자 박은혜
진정숙 양영자 김순배 윤영자 안정숙 노정자 전원신
김정연 이명하 장애고 윤남희 조순희 김윤희 이소규
강수정 하현주 신성숙 박유아 도수자 이근주 진영순
손영호 박순규 양영경 김경애 이미희 이선옥 오후연
김정숙 한봉숙 최원선 단은정 송해란 김지나 신혜영
장미영 박지연 정예자 박혜진 이상경 노경화 김정남
정호영 김점순 임정연

23. 예비다부 / 부 장 고병국

지 도 / 이준우 부 감 / 신상수 박운석
남교사
김윤환 변창대 안준모 신창현 유성렬 박인기 김동립
임춘식 조인경 김평호 김성훈 양해웅 김근태 이태훈
홍희송 김진준 유충근 이도원 유인근 김춘수 박태현
여교사
김상화 김승자 장정훈 박부미 서인성 노효영 양은옥
이계옥 김수진 주영희 양미옥 장용분 김정미 최선임
김명화 김은영 김유정 오연주 이영아 정영란 문 회
김현실 홍희송 정희정 황미순 안영희 정영미 정영미
강가일 강순금 이선경
정순옥

24. 탁아부 / 부 장 최윤덕

지 도 / 김정자 부 감 / 이영일 민순애
남교사
조준덕 김희선 김재호 김민수 엄연상
여교사
김희선 김숙숙 조성옥 김경아 박미순 신명자 김정화
장옥희 김점순 김점순 오지현 김병희 김해영 홍양래
전정자 손영주 오윤진 박명숙 홍성실 이옥순 김재순
이명자 김호녀 하말영 김희옥 김점순 박신준 이명순
조금적 이강자 이강분 오수옥 나순순 안정자 김춘식
김연태 김점숙 박복동 장귀녀 장귀녀 손옥희 정순덕
김말선 나정순 정경희 김영옥 이가옥 최애숙 서순실

박옥춘 이현주 이현순 성춘순 김정희 차명신 김수자
유옥련 신금순 백옥심 공정자 고영해 홍영숙 고명진
임도화 안춘희 천현애 백은실 강정일 전정희 정민자
권필순 정영애 김한선 정진순 박은숙 김말수 김명숙
안숙자 강재열 김숙자 서덕순 윤옥중 이달순 최순자
이기에 이음진 박갑래 홍갑순 강경란 문선순 최예순
송정옥 나영의 김복련 유남순 나순애 노 반 표복심
송춘임 이연순 채귀녀 최현자 전옥이 김 철 강영자
나순순 양명희 배귀녀 황순정 박순옥 정주한 임봉옥
강성자 홍순이 김춘희 신정호 장진옥 이옥순
이영순 최순진 이영자 김연태 이덕순

25. 영어교육부 / 부 장 이병학

지 도 / 이승림 부지도 / 남상범 부 감 / 이부성 장영옥
남교사
장충균 정홍관 이정협 오 석 김병수 김상길 정종수
이선우 이동선 Justin Chang Paul Chung
Mr. E. Lavina Mr. R. Reinhardt
D. Wiens Tom Lee M. Schult
여교사
김정순 이경애 이유주 이연기 오은영 박선영 김진순
이지희 김석영 정지영 Mrs. A. Lavina Julie Rah

26. 예신부 / 부 장 송환창

지 도 / 장우천 부 감 / 장철환 이경현
남교사
박찬섭 김성호 고건일 이승득 문연식 구성혁
여교사
이미애 정영희 이필순 박소연

전도위원회

위원장 / 강은원 지도 / 장경철
서 기 / 김재균 회계 / 이인상
위 원 /
김경철 남선우 김재명
실행위원 /
김태연 최만엽 김점섭 박문태 김단용 손 철 김용순
백영희 권명옥 엄복섭 주순희 김광호

남전도회
바울연합 회장 진충용
베드로연합 회장 김철환
요한연합 회장 박원화

여전도회
한나연합 회장 김용섭
에스더연합 회장 명정옥
루디아연합 회장 전정금
마리아연합 회장 유순원

선교위원회

위원장 / 노광현 지 도 / 장봉생
서 기 / 강봉수 회 계 / 이하영
위 원 /
하대선 송환창 조인제 이하영 박상준 장봉수

국별 국장 권사 간사
미주국 하대선 이정자 오순도 김혜정
유럽국 송환창 박운석 전용동 김경희
북아시아국 이하영 한영숙 이명규 이성애
남아시아국 박상준 김용섭 박원영 배은경
아프리카국 강봉수 윤정미 장석두 이다주
북한국 조인제 김상순 허 오 강 순

실행위원
안수집사 /
강철형 고승균 김영달 김영록 김창국 박찬섭 박홍규
배춘식 이형수 장중균 최차용 정래부
권 사 /
전순자 김석윤 전명옥 장영옥 박효지 임옥환 이희자

공향조 위 원 /
유국현 이상해 한용배 신광철 김영길 이정관 설규동
조규하 정주현 김재호 김대환 정종수 허 경 임영호
김경환 권병철 박기영 권순탁 이인원 정부조 김을필
이신동 박준원 이상순 이금효 이경숙 한정은
정은희 이희순 홍정화 박은숙 최영희 김영아 김성희
장해영 장수진 이명숙 김지은 정선현 김정선 홍인숙
한정희 이경숙 박애희 동지현

선교연구원

원 장 / 노광현 지 도 / 장봉생
부 감 / 강철형 공향조
간 사 / 이복희

연구부 / 김영달 교육부 / 정의홍 학생부 / 이정률

봉사위원회

위원장 / 김은호
서 기 / 박인건 회 계 / 김영길
위 원 / 김경철 박인건 김영길 문홍구

차량관리부

부 장 / 김영길
차 장 / 이정우 이갑재
이정우 이갑재 허명호 김동안 김수진 박원화 엄창근
이영일 이성실 허관영 이승구 성 중 윤병조 윤선환
변해수 강신호 장영창 김일교 이창권 김종규 우기섭
한종현 박창식 김봉중 정무열 이교영 권용동 강석준
김동삼 김정태 신중식 김종민 차기풍 김종성 박한규
임동재 손기현 이용열 추병창 정동우 오인근 윤석규
오병두 정문호 김복학 강병모 공석생 황현철 이유성
송인섭 김원호 강희창 이재철 김면영 장동규 차정각
한종구 장영환 이달옥 이인광 김영록 조성재 정래부
전은배

인사위원회

위원장 / 당희장
서 기 / 우기전
위 원 /
윤명식 김영개 강순용 김차생 우기전 손동운 노광현
오진국 이종국 손경수

기획위원회

위원장 / 김차생
서 기 / 손경수
위 원 /
윤명식 김의철 김은호 강순용 손동운 김차생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최대원 강은원 김재명 손경수 이종국
남선우 박승준

교구위원회

위원장 / 강순용 지 도 / 김찬곤
서 기 / 박영식 회 계 / 강모용
위 원 /
남선우 김의철 윤성철 차신득 박승준 이병욱 마성락
박영식 최성현 엄필성 강모용 이하영 김영길 이병학
오정현

새가족부

부 장 / 오정현
지 도 / 윤삼중 부지도 / 한영준 부감 / 김구형 엄숙현
교 사 /
임동개 김오래 이소현 이승득 김영옥 김금순 이달옥
반연숙 염경자 조재철 이정태 남경자 홍경선 김신경
박은숙 주순희 윤상태 김정희 김금순 허연옥 김효정
한 숙 장승규 김문섭 홍경숙 신숙숙 박경열 안금자
문상식 이상해 김달현 김영혜 김남주 박순옥 박석두
김보옥 박현해 김산옥 홍해숙 조향순 김경숙 김영은
박애영 손숙자 이향순 이영숙 이은옥 최말순
이정숙 해인순 노정화 박영희 이선자 김홍희 김병희
박양자 김중태 전은배 고상전 김재준 원우선 최 순
이만순 박현순 전은배 김경선 김재준 원우선 최 순
이성팔 애금수 한명자 김문자 장진녀 윤희순 신준희
김문철 한명자 김문자 장진녀 윤희순 신준희
강영옥 전소자 학자 김명관 김준원 신준희
황선구 김은나 정금연 장화자 애금수 김준원 신준희
최정순 예일호 유금열 김희선 김남희 최영득 김준원 신준희
이정재 유금열 김희선 김남희 최영득 김준원 신준희
윤수원 박재준 김희선 김남희 최영득 김준원 신준희
박승길 고재승 김미자 이금순 이자경 유상순 이혜자
윤석민 김미자 이금순 이자경 유상순 이혜자
전영준 강옥자 왕인숙 아영자 조유자
김영일 안인자 조유자

교구 양육위원

정민준 권정자 엄해정 황진순 박정숙 아옥선 이근덕

백영자 정화숙 한정희 김계희 노정자 전옥순 전방자
심효숙 최숙경 김영숙 오재일 임홍숙 박현숙 이영옥
박정숙 윤화숙 전성실 김은숙 김홍순 노순옥 이옥자
김영자 정길자 김명숙 김유선 김희선 최만복 유현숙
주순정 심현경 오말녀 김명자 김유선 박종영 문애경 피순복
유은희 박찬숙 김금순 김애영 박종영 문애경 장 순
김태옥 김경희 송경희 박인자 박종영 이석목 박광래 강 순
정태옥 김경희 송경희 박인자 박종영 이석목 박광래 강 순
오길자 전숙영 임정숙 김선자 김성금 이장근 김부영 정찬실
강석준 김재윤 공석생 석귀수 김영연 조순림 김숙
김연향 서경자 천은송 강창식 유옥련 오경애 김희숙 한숙원
안숙자 김옥희 최말순 최낙은 이혜자 임기채 안소현 김순오
김형심 이경순 최말순 최낙은 이혜자 임기채 안소현 김순오
은필레 이기찬 문경희 임연향 장세복 김기홍 김정희
윤정미 김 철 유은실 김지련 김신자 동방용 유주옥
허옥남 김 향순 김윤식 최광숙 최광숙 김명자 김기홍 김정희
강석주 왕유남 성정애 김정옥 김명자 김기홍 김정희
임선영 박윤석 김숙희 최광숙 김명자 김기홍 김정희
유충근 정순옥 전정자 이영순 양옥자 김규석 유호순
이애자 황정미 조준옥 이수자 변금순 김순희 김복희
박현숙 백정현 정운환 윤인자 최계순 김순희 김복희
김영옥 안옥남 전경금 유영희 최계순 김순희 김복희
신은자 임찬순 김영선 유금순 이경효 정경희 김순희
최태희 김승옥 이현혜 백영옥 노명순 함명순 김성자
안상숙 최정일 이혜수 최명순 함명순 김성자

행정위원회

위원장 / 김의철
서 기 / 김방진 회 계 / 김여운
위 원 /
이태규 윤명식 김경철 김방진

중현동산관리부 및 상조회

협 력 위 원 /
마성락 최성현 김재명 이하영 최명환 정정주
동산관리부장 / 김여운
상 조 회 장 / 김여운
서 기 / 정정주
회 계 / 전홍렬
실 무 담 당 / 서동석 오인근
차 량 담 당 / 김종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 최대원
서 기 / 차신득 회 계 / 안종욱
위 원 /
윤명식 조선근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차신득 안종욱
최명환

회계부
심일조 / 김두원 전학래 조중광 김진옥 박창서 박종현
박병택 김보원 홍홍기 송두석
감 사 / 박남수 유장평 전재룡 임순배
건 축 / 마도원 이예경
선 교 / 마숙진 황충정
집 계 / 홍시오 박문태 김장영 송두석 김용석 이상호
조영철 김영달 정재모 고계승 허 오

건축위원회

위원장 / 남달우
서 기 / 최무길 회 계 / 최대원
위 원 /
윤명식 정하우 세일영 최무길 예창호 김관재 김인관
임무현 최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 박승준
서 기 / 양종철
위 원 /
손동운 이 훈 김광남 이종석 양종철

교육연구소

소 장 / 당희장 부소장 / 정하우
지 도 / 성봉환
부지도 / 최영찬 김필수

1. 교육분과
분 과 장 / 성봉환
위 원 / 장봉생 이승림 윤성철
실행위원 / 정홍식 최 규
2. 교육자료 개발분과
분 과 장 / 최영찬
위 원 / 조윤재 윤삼중 한근수 이훈우 박영식
실행위원 / 김단용 장주석
3. 교육행정 지원분과
분 과 장 / 김동석
위 원 / 박경한 김필수 양종철
실행위원 / 김영은 장충균

* 자문위원 :
교육위원회(위원장, 지도, 국장) - 김영개 이종대 이종국
선교위원회(위원장, 지도) - 노광현 장봉생
전도위원회(위원장, 지도) - 강은원 장경철
교구위(위원장, 양육부장, 지도) - 강순용 오정현 김찬곤 윤삼중
기획위원회(위원장, 실장) - 김차생 오진국
교육훈련원(부원장, 지도)
위촉(장로) - 최성현 서동석

* 연구위원 :
협동목사 - 윤영탁 정규남 김정우
부목사 - 조윤재 이종대 장봉생 윤삼중 한근수

1996년도

집사 · 권찰 누락자 명단

제3-1교구
* 신임남집사 코희봉 전현준
* 신임여집사 안인자
제5-2교구
* 연임남집사 김경서 이민호 이동규
* 연임여집사 홍현희
제6-1교구
* 연임남집사 고상건
제8-2교구
* 연임남집사 권 철
* 연임여집사 오희숙
제11-1교구
* 신임남집사 권상조
제13-2교구
* 연임남집사 이호성 엄창근 엄병준
* 신임남집사 이병룡
* 연임여집사 이신영 엄진예
제14교구
* 연임남집사 Mr. Lavina Mr. Reinhardt
* 연임여집사 Mrs. Lavina Mrs. Reinhardt

권찰
제 3-1교구 김화영 김경옥
제 5-1교구 정 아
제 5-2교구 이종철
제11-1교구 박재순



《 청년 사역을 하며 함께 고민하는 문제 》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뇌를 가진 청년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김 동 석
(목사, 청년1부 지도)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잘 풀리지 않는 머리를 두드리며 가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나는, 얼핏 나를 찾아온 그 형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청년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한 후로 그 형제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모두 합해서 열댓 마디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몇 번 되지 않는 그 형제와의 짧은 접촉을 통해서도 그 형제의 말을 정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아 듣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의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형제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면 다른 일은 모두 그만두고 오직 그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였다. 게다가 이 형제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귀 기울이며 어렵사리 알아들은 그의 말은 이런 것이었다. "저 저도 예비조장 훈련에 참석할 수 있나요? 허락해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예비조장 훈련이라는 것은 청년부 자체에서 조장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을 일정기간동안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성경공부와 기도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답을 해주어야 할 지를 몰랐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훈련의 과정에 동참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가의 문제가 너무나 가슴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몇가지 언급을 피하고 다른 일상적인 몇가지 말로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능하면 그 영혼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할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비조장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부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면 즉시 청년부에서 조장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제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쉰 쉰쉰쉰. 목사님에 자를 생각해서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저도 제 형편을 잘 아는데 무리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저 다만 그 성경공부에 참석해서 좀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기에 "

나는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나는 그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저 겉모양만을 보았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주님! 용서 하옵소서. 이후로는 이 아둔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각 사람의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느 교회에서나 청년부를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곤란한 문제는 아마도 '이성(異性) 간의 문제' 일 것이다. 사실 교회의 청년부는 한 개인의 인생 중에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그 교회의 복음적인 신앙교육을 통하여 영육 간의 성숙을 도모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젊은이들과 모임 속에서 함께 모이는 서로서로를 향하여 특히 이성(異性) 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보면 재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성(異性)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한 개인의 영혼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인 신앙상의 실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데에 있다.

내 앞에서 서 있던 그 자매도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이는 그 자매의 눈가에 어릿한 눈물 방울이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게 하였다.

자기가 얼마 전부터 한 형제와 밀접한 사이가 되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크게 열심이거나 찬양적인 성숙도가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주일이면 빠짐없이 출석하여 얼굴을 대할 수 있었고, 가끔은 우스운 화제거리를 터뜨려서 자칫 굳어지려 했던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관대한 용서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그 형제를 주목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되게 되었노라고 물론 언제나 사이가 좋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큰 문제가 있었던 기억은 아직 없었노라고 답답한 하소연의 감정이 완연한 그 자매의 울음섞인 소리들을 대충 하나의 줄거리로

정리해보면 이러한 소리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의 만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자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글쎄요. 무엇이 문제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가 그 친구에게 자주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듯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에게 내가 알고 있었던 몇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제한된 인생들은 한 쪽 면 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

그 때 갑자기 그 자매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지금 제게 신앙상담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제게는 필요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미 몇몇 책들을 통해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마음의 위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내 귓가에 다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매의 모습은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남기며 복도 저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었다.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이 부족한 종은 더 깊은 상처자욱만을 남겨주고 말았나이다.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피뎌온 손으로 그 심령을 안수하시고 그 상처를 고쳐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바르게 보내기 10계명

1.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
2. 나의 가정이나 나의 연인이 성탄절에 우선권을 차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 의 거창한 행사보다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살기를 가장 우선시한다.
3. 성탄절을 이용하여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그럴듯하게 도안하여 넣음으로써 장사하려는 알뜰한 상술을 쓰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는다.
4.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날이 아니다.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성탄절 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이지 마음을 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좋은 '즐거운 날'이 아니다.
5. 성탄절에는 잊어버린 부모를 찾자. 길거리와 양로원, 그리고 기도원에 배려된 부모님을 가정으로 모시자. 또한 성탄절에는 과외수업과 학원과 학교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지니셨던 자유를 주자.
6. 성탄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내가 미워함으로 죽어가는 형제가 있으면 그와 화해하고, 평소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따뜻한 웃음을 보내자.
7. 성탄절을 깨끗하게 보내자. 맑은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자.
8. 성탄절에는 정당하지 않은 돈 거래를 하지 말자. 인사차려라는 명목으로 사치스런 선물을 하지 말고, 사람간에 현금과 주고 받는 일을 하지 말자. 오직 수고로이 얻은 소득의 현금이 가치있게 쓰여지도록 지혜를 강구하자.
9. 성탄절에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며 범하지 말고, 이웃을 기만하여 취리하는 일을 그만두자. 오히려 맘껏 얻은 값진 소득으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을 하자.
10. 성탄절에 행여 남이 내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 바라지 말자. 이웃과 화의 대형 추위를 탐내지 말고, 내 것이 적음을 불평하지 말자. 달란트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199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맡은 일에 충성치 못한 게으른 종과 같은 마음에 두려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199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맡은 일에 충성치 못한 게으른 종과 같은 마음에 두려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기억해주시며, 기도해주시는 여러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교회 야외예배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한인교회에서는 야외예배를 통해 가정이 단합하는 기회를 가져왔는데 올해는 수리남이 노동절로 지키는 5월 1일에 강 건너편에 있는 New Amsterdam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친교행사도 가졌습니다. 이 야외예배에 아이들만 나오는 가정의 부모들도 초청하고, 육상에 내려있는 선원들도 초청하여 함께 모임으로 전도적인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이아나 방문

지난번 선교편지에 예고해드린 대로 6월 23일(금)부터 26일(월)까지 가이아나에서 사역하시는 강대성 선교사님의 '성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이곳 수리남에서 사역하시는 캐나다 선교사이신 팩커 목사님도 그곳에 통신을 통한 신학교육을 위해 가시는 길이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총회장님과 강승삼 목사님은 오시지 못하였지만 강대성 선교사님을 파송한 LA총현선교교회의 부목사이며, 전에 한국 총현교회에서부터 잘 아는 김일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유익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다음날이 가이아나 구세군 100주년이었어서 큰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연구원을 개원하는 장소가 가이아나에서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마침 그 교회에서 구세군 행사의 일부를 하기에 쉽게 행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날 오후 성경연구원 개원식에 참

예하여 가이아나의 장로교회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동안 사회주의가 나라를 지배하면서 공산국가들과 연관을 가짐으로 종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교회당은 많이 남아 있지만 교인들이 아주 적은 숫자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기에 성경연구원이 개원됨으로 많은 지도자들을 카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연구원 개원식 후에 성경연구원생들이 마련한 음식을 대접받고는 강선교사님, 팩커 목사님, 김일동 목사님과 함께 wakernaam(워커남:화란어로서 이름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월요일까지 머물면서 주일날 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었으며, 강선교사님의 사역을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 중의 하나는 전에 사회주의 국가로 있으면서 북한과 교류를 가지고 북한의 많은 의사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함으로 남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도 전에 북한 의사가 일을 했다고 하는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을 3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처음 만나보았지만 아주 오랜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주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며 또 날마다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리남 가까이에서 귀한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 고장으로

6월 9일 아침에 화란어 공부를 가다가 차가 길거리에서 서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타이밍벨트 때문인데 타고 다니는 봉고차는 디젤차이기에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서 엔진의 중요한 부분을 깨뜨림으로 약 10일 정도 사용을 못할 뿐 아니라 수리남에서는 부속을 구할 수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12/18(일) 찬양위원회 회의
3.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7.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직분과 봉사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없어서 비슷한 것을 사서 자르고 깎고 하여 겨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봉고차로 현지인 장년들과 주일학생들, 한인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6월 11일 주일에는 여러 성도들이 수고해 주셔서 성도들을 교회로 태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90년 10월에 구입한 작은 차(81년도형)도 왼쪽 앞바퀴쪽의 쇼바가 망가졌는데 성경학교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한 번 교장나면 부속 구하기도 어렵고,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는 수리남의 자동차 사정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쓰기

매주일 성경을 한 장씩 쓰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10월 중순까지 '누가복음'을 쓰고, 현지인교회는 4월부터 7월까지 '마가복음'을 쓰고 8월에는 '요한일서'를 그리고 9월에는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교회를

지난번 편지에 이단이 시작됨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던 사람이 네덜란드로 돌아가 다시 안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단교회를 시작했던 가정도 다시 교회에 나오고, 성경공부에도 참석했습니다. 얼마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Margo자매가 이단을 시작한 사람을 잘못된 것같이 생각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그 가정은 다시 교회(?)가 되고 제금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주 3회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주일, 수요일, 금요일). 아이들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 주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집회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긴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님도 함께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진료소를 위해

지난번에 교회옆 땅의 명의를 바꾸는 일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줄 압니다. 이 서류가 마지막 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만난 분은 학교와 진료소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의 반대 때문에 부딪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선교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기도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설계와 건축, 공사비와 좋은 협력자(교사, 의사, 건축가 등)가 필요합니다. 땅을 얻고 2년 내에 건축을 못하면 땅을 돌려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됩니다. 더욱 힘써 선교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